

2018년 1월 20일 “(큰 숲 성경 - 1) 창세기: 말씀으로”(창 1:1-2; 26-28)

<도입>

오늘부터 성경의 큰 숲을 보는 길로서 창세기부터 한 권씩 살펴보겠습니다. 큰 책들은 두 번에 나누어 보고 모든 책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성경 이해의 유익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성경

구약은 그리스도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언약)을 하고,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 구원을 선포하고 그 나라가 확장/심화되는 과정을 거쳐 완성에 이를 것을 약속합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의 공통 특징(주제)은 약속입니다.

약속이란 쌍방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은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성경은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계시)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으로 온 피조계에 질서를 이루고, 샬롬(평화)을 이루는 것입니다. 샬롬은 모든 관계의 온전하고 행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면 인간과 세상에 예배하신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깊이 알수록 주님 목적이 이루어지길 소망하게 됩니다.

[2] 창세기 - 창조

구약 첫 5 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5 경(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한 것을 담은 5 권의 경전)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말씀을 전한 때는 출애굽 후 광야 40년 방황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광야에서 머물 때입니다.

대부분 광야에서 출생한 2 세들이었습니다. 광야 1 세대는 불평하며 불순종했지만 2 세대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주님 뜻을 실현할 수 있을지를 말해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다룬 주제는 창조입니다. 출애굽 시킨 야훼(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생명체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선포합니다. 창조의 선포는 이미 구원받고 믿는 자들이 믿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은 나를 구원해주신 분임을 깨달았을 때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창 1 장은 그분이 어떻게 창조주 되실 수 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조 전후와 그 사이의 과정을 말해줍니다.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고 당시의 우주관에 입각하여 말합니다(6 절).

2 절 - 물이 갈라지기 전 상태: 혼돈(무질서), 공허(무의미), 어둠(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음)

→ 특징: 선하고 아름다운 어떤 것이 있거나 만들어질 수 없는 상태, 즉, 그 자체 안에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창조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창조의 역사에는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물리적 원리차원에서). 이 에너지는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 “그대로 되었다!” (딤펴전 4:4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보기에 좋게 만드는 말씀의 특징(속성)은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는 **약속**입니다. 시작하신 창조를 포기하지 않고, 선하신 뜻대로 유지, 발전,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이죠. 창조는 행위이므로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3] 인간 창조와 타락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한 의미있는 존재로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고 하셨습니다(26 절).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요 그 말씀 속에 선하신 사랑의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처럼 말을 하고, 사랑의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이 이유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복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28 절).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복은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아야 할 복입니다. 사람은 땅을 정복하고(우위에서 돌봄) 모든 생물을 다스릴 때(사랑의 섬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사랑과 격려와 지혜를 얻습니다. 즉, 사람 존재의 생명의 힘은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옵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담/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금기사항을 불순종하여 깨졌습니다(3:1-7). 아담/하와 쪽에서 두려움과 수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이 깨짐은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인간에게 일어납니다(타락). 4 장에서 가인의 제사와 그에 따르는 살인이 일어나고, 6 장에서 집단의 비윤리적 행태로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11 장에서는 바벨탑을 짓는 자들이 자기 능력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고 이름을 날리자며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은 사랑의 창조 위에 어두움을 덮게 하는(1:2) 역창조입니다. 28 절의 참 소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사람에게 맡기신 피조계는 잿빛으로 변질되었으며 창조의 순기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단절과 탐욕과 파괴의 다양한 차원으로 드러게 되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창조 사건을 또 다시 거스르며 이미 시작하신 창조가 완성되기까지 masterplan 을 신실하게 지켜 가십니다.

<맺음>

과연 나는 어떻게 올바르게 창조의 목적에 순응하는지 성찰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가능합니다. 나의 현실과 소명의 영역에서 피조계를 돌보는 자세가 회복되려면 창조를 가능케 하신 사랑의 능력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이 말씀에 붙들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지금까지 창세기는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억나는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2. 위 교안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해 보시고 자유롭게 말씀해 보세요.
3. 창조와 역창조(위 참고), 그리고 다시 창조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설교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3, 4, 6-9, 11 장 이후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행동에서 나타납니다)